#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1.	한·칠레 FTA 농축산물 양허	1
2.	한·칠레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변화	2
3.	국내 파급영향 및 대응	4
4.	한·칠레 FTA 이행평가와 시사점1	1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수:박성재 선임연구위원02-3299-4238seongjae@krei.re.kr내용문의:문한필 연구위원02-3299-4259hanpil@krei.re.kr자료문의:원동환 전문원02-3299-4274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우리나라의 첫 FTA 상대인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는 우리 측 농축산물 양허수 준이 가장 큰 쟁점이었음
- 협상결과,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 21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373 개 민감품목의 관세철폐도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키로 합의
- 따라서 11월~4월 기간에만 45%의 관세를 10년간 철폐하는 포도를 비롯해 키위 (10년), 돼지고기(10년)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된 시장개방을 할 수 있었음
- o 이행 10년차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보다 11.3배 증가한 7억 8천만 달러로, 포도, 돼지고기, 키위, 포도주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
- 2013년 칠레산 포도의 수입액은 2003년 대비 12.2배 증가한 1억 7천만 달러
- 돼지고기, 포도주, 키위 수입도 각각 대비 3.4배, 12.2배, 6.8배 증가
-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단가는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수입피해는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봄철(3~5월) 국내 과일·과채에서 차지하는 칠레산 포도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증가 $(1\% \rightarrow 6\%)$
- 칠레산 포도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FTA 이행 기간 동안 국내 과수산업은 발효 이전 수준의 생산규모를 유지하면서 시장가격도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FTA 이 행 기간 국내 과일시장의 수요증가 때문
- 또한, FTA 재정투융자를 포함한 자본투자의 확대는 국내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 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
- ㅇ 그러나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과수농가는 직간접적인 수입피해를 입었음
-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국산 과일은 빠르게 증가한 수요에 대응해 생산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FTA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수농가의 손실에 해당
- 칠레와 비교해 농업여건이 우위에 있는 한·미, 한·EU, 한·중 FTA의 파급영향 은 확대될 수 있음
- 과수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칠레와의 FTA에 대응하여 마련한 과수산업 투유 자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듯이, 중국과의 FTA에 대비해 밭작물산업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함
- 수입점유율 증가로 인해 국내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건강과 안전성·기능성 농식품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투유자 사업 개발이 필요
- 다수의 FTA가 동시에 이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 수입피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소득안정장치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함

# 1. 한·칠레 FTA 농축산물 양허

- □ 우리나라의 첫 FTA 파트너로 선정된 칠레¹)와의 FTA 협상에서는 농축산물 양허수준이 가장 큰 쟁점이었음
  - 국내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 협상은 1999년 12월 에 시작되어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에 타결됨
  - 협상 초기 칠레 측의 모든 농축산물에 대한 자유화 원칙 고수로 난 항을 겪음
  - 농업분야 협상결과,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 21개 품목(HS 10 단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여타 민감품목인 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 등 373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도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키로 합의2)
  - 우리 측 농축산물 관세철폐율은 70.3%에 불과한 반면, 칠레는 쇠고기 및 쌀 관련 일부 품목(10개)의 관세를 10년 철폐하기로 하고,
     나머지 전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함
- □ 당시 2~3년 내에 타결이 예상되었던 DDA 협상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칠레 FTA로 인한 국내 농축산물시장의 개방수준은 최소화된 것으로 평가
  - ㅇ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칠레산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
    - 포도의 국내 성출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현행관세(45%)를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10년 동안 균등철폐하기로 함

66
FTA 관세감축은 칠레산 포도, 키위, 돼지고기 등 일부품목에 한정

<sup>1)</sup>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통상전략을 다자 중심에서 지역 또는 양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험대였음. 칠레는 FTA 체결 경험이 많은 선진 통상국가, 남미시장 개척의 교두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지구 반대 편 남반부에 위치) 등이 고려되었음

<sup>2)</sup> 또한, 쇠고기, 닭고기(냉동, 조제저장), 유장, 자두, 만다린, 기타 채소 등 18개 품목은 일정량의 무관세 쿼터(TRQ)를 제공하 되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의 관세감축은 DDA 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함

# 2. 한·칠레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변화

- □ 2013년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인 2003년 대비 11.3배 증가한 7억 8천만 달러
- 제재목(주로 파렛트재)등 2009년부터 수입이 급증한 임산물이 전체 수입액의 51%를 차지³)
- 관세가 감축된 포도(11~4월, 10년 철폐), 돼지고기(10년), 포도주(5년), 키위(10년)의 수입이 크게 늘었으며, 이들 네 품목 수입액은 전체 칠레산 수입액의 40.7%를 차지
- '13년 칠레산 포도 수입은 '03년 대비 12.2배 증가한 1억 7천만 달러
- 돼지고기, 포도주, 키위 수입도 각각 대비 3.4배, 12.2배, 6.8배 증가
- 이외에도 채소종자와 딸기(냉동), 토마토(페이스트)의 수입이 증가
- 칠레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7%('03)
   에서 2.6%('13)로 빠르게 증가
- 포도(35.1% → 71)<sup>4)</sup>, 키위(7.8% → 27.6), 포도주(6.5% → 12.2)

#### 표 1.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배 구분 2003 2006 2008 2010 2012 2013 13/03 268,655 (1.4) 109,052 135,084 21,825 63,852 222,161 농산물 12.3 117,935 (60.3) 13,656 (35.1) 27,835 (46.8) 74,637 167,016 (71.1) 64,185 (58.2) 포도 12.2 12,391 (18.5) 3,964 7,417 11,998 (27.6) 1,758 12,255 (19.5) 키위 6.8 24,500 (21.7) 2,990 (6.5) 15,376 (17.4) 30,489 36,458 (21.2) 포도주 12.2 30,530(1.4)84,705 92,492 (2.8) 115,747135,707 114,442 축산물 3.7 89,508 (10.2) 112,580 (15.7) 125,860 (10.4) 102,477 (11.2) 30,237 (15.4) 83,557 (10.7) 돼지고기 3.4 24,476 37,518 (1.3) 340,044 (6.5) 355,332 (5.9) 398,595 임산물 23.6 13,133(6.5)8,800 32,886 (11.4) 43,561 (13.2) 74,130 (15.7) 89,156 (16.5) 제재목 10.1 173,033 239,062 713,200 590,875 781,692 합계 11.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칠레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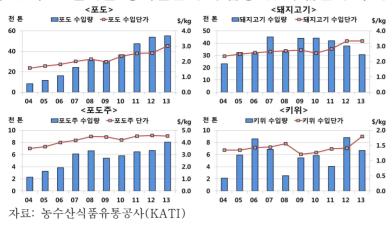
66

한·칠레 FTA 이행 10년차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보다 11.3배 증가

<sup>3)</sup> 국내 제재업체가 감소한 데다 원목의 국제가격이 상승해 최근 원목을 대신하여 제재목의 수입이 늘고 있음(원목에 비해 제재 목은 운임 비중이 낮음). 칠레산 파렛트재는 FTA 발효 즉시 8%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경쟁국보다 가격우위를 확보함

<sup>4)</sup> 칠레로부터의 포도 수입은 신선포도가 대부분이며, 2010년 이후에 포도주스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은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 칠레산 신선포도의 수입점유율은 77%('03)에서 82%('13)로 상승

#### 그림 1. 주요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량 및 수입단가 추이



○ FTA 발효 후 국내 수입점유율이 확대된 품목의 수입단가(c.i.f.)도 30~90% 상승해 칠레산 수입량 증가율은 수입액 증가율보다 낮음

# □ 칠레로의 농축산물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03년 대비 7.5배 증가한 570만 달러

○ 주요 수출품목은 면류(라면·국수·기타 파스타)와 사료, 과자류, 소 스, 인삼 등이고 최근 들어 음료와 기타 조제 농산물, 과실류, 식물 성유지의 수출이 증가 추세

#### 표 2. 대칠레 농축산물 수출 추이

다이 첫 다리 베

						단귀 선	<u> </u> 된 더 , 배
구분	2003	2006	2008	2010	2012	2013	13/03
농산물	719	691	2,367	2,625	4,476	5,098	7.1
면류	156	250	420	680	1,013	1,287	8.3
과자류	92	164	225	209	255	422	4.6
축산물	30	0	351	0	214	5	0.2
임산물	7	15	8	75	180	593	84.7
합 계	756	706	2,726	2,700	4,870	5,696	7.5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I)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이 증가하면서 농축 산물 무역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5)
  - 농축산물 수입이 수출을 압도하는 데다.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도 2003년 6.9천만 달러 에서 2013년 7억 8천만 달러로 11.3배 증가함

66

FTA 발효 후 대칠레 농축산물 무역적자도 11.3배 증가

99

<sup>5)</sup> 한칠레 FTA 발효 이후('00~'03 대비)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증가율이 19.4%p 증가했고(11.1% → 30.5), 이는 같은 기간 우 리나라 농축산물 평균 교역증가율 상승 폭인 4.6%p( $7.5\% \rightarrow 12.1$ )의 네 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한칠레 FTA를 계기로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은 절대적은 물론 상대적으로도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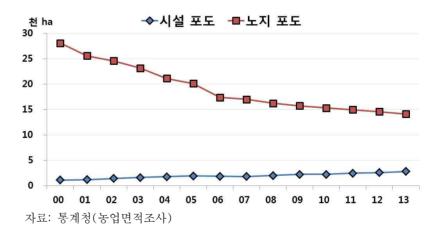
# 3. 국내 파급영향 및 대응6)

### 3.1. 칠레산 포도

# □ 신선포도는 10년간 연평균 수입액증가율은 29%씩 증가 하여 이전 5년간 평균증가율 13%를 크게 상회

- 칠레산 포도 수입은 대체로 1~6월 사이에 수입이 이루어지는데 3~5
   월 사이에 전체 수입량의 88.4%가 집중(2010~13년 평균)
- 칠레산 신선포도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시설포도<sup>7)</sup>의 재배면적은
   한·칠레 FTA 이행 첫해 1,781 ha에서 2013년 2,802 ha로 약 1천 ha가 증가
- 국내 포도 생산은 1990년대 말부터 감소 추세이며, 노지에서 시설로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에 FTA가 발효되면서 이후 시설포 도 재배면적 증가율이 다소 위화됨<sup>8)</sup>

# 그림 2. 국내 노지포도와 시설포도 재배면적 추이



- 6) 포도주와 임산물 수입은 국내 생산과 연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7) 최근에는 4월에 수입된 칠레산 포도가 국내에서 저장을 통해 5~6월까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설포도의 성출 하기인 5~6월의 시장가격에도 영향을 미침
- 8) 노지포도 재배면적은 1999년 29.5천 ha로 정점을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한칠레 FTA 발효 전인 2003년 23.2천 ha 에서 2013년 14.1천 ha로 약 9천 ha가 감소함. 이로 인해 국내 포도 생산량은 2000년 47.6만 톤에서 2003년 37.6만 톤, 2013년 26.7만 톤으로 감소. 한편, 시설포도 재배면적 증가율을 한칠레 FTA 발효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발효 이전 2000~04년 평균 증가율은 12.4%였으나 발효 이후 2004~13년 평균 증가율은 5.2%로 약 7.2%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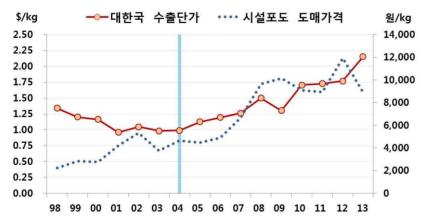
66

FTA 발효 후 수입규모가 연평균 29% 증가한 칠레산 포도의 주 수입시기는 3~5월 ○ 칠레산 포도의 수입은 봄(3~5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설포도 외에도 이 시기에 출하되는 딸기, 토마토, 참외 같은 과채류와도 일정한 대체관계를 형성

# □ 45%였던 수입관세가 10년간 균등철폐 되었지만, 칠레산 포도의 국제수요 증가로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 칠레산 포도의 수입단가가 계속 상승한 것은 칠레가 200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03), 미국('04), 중국('06), 일본 ('07) 등 거대경제권과 맺은 FTA의 이행으로 칠레산 포도에 대한 국제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임9)
- 2004년 이후 칠레산 포도의 수입단가(c.i.f.) 상승은 관세감축 효과를 상쇄시켰으며, 이는 국내 시설포도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졌음
- $\circ$  4 $\sim$ 7월 시설포도 도매가격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 그림 3. 칠레산 포도 수출단가와 국산 시설포도 도매가격 추이



주: 시설포도 도매가격은  $4\sim7$ 월의 가락동 도매시장의 월별가격을 거래물량으로 가중평균 하여 산출

자료: GTIS-GTA,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산물유통정보)

46 국제시장의 수요증가로 칠레산 신선포도의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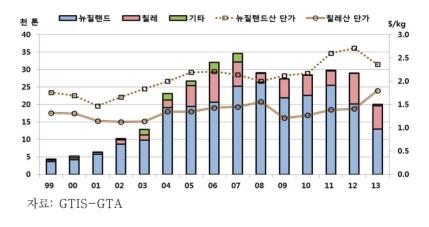
"

<sup>9) 2000</sup>년에 60만 톤의 신선포도를 수출한 칠레는 자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가 이행되면서 수출량이 2005년에 74만 톤, 2013년 에 86만 톤으로 늘어났고 수출가격 또한 상승함. 우리나라로 수출된 칠레산 포도의 평균 수출단가(f.o.b.)는 2004년에 0.99\$/kg에서 2013년에 2.15\$/kg으로 117.2% 이상 상승함

### 3.2. 칠레산 키위

- □ 2013년 6,678톤 수입된 칠레산 키위의 수입비중은 33%(금액 기준 28%)이며, 주로 뉴질랜드산 키위와 경쟁
- 국산 참다래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출하되기 때문에 4~11월에 수입되는 칠레·뉴질랜드산 키위와 경합 가능성은 낮음
- 신선 키위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3.5만 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주춤한 상태
- 칠레산 키위는 뉴질랜드산에 비해 품질이 낮지만, 관세가 10년 동안 감축되면서 칠레산의 수입비중이 크게 늘어남

#### 그림 4. 신선키위 수입량과 수입단가 추이



- 국산 참다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도매가격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향 추세에 있음
- 재배면적(성목면적)은 2007년 992ha에서 2013년 1,331ha로 34% 증가했으나, 생산량은 2011년 2.3만 톤을 기록한 후 감소
- 도매가격(중품)은 2003~05년 3,380원/kg에서 2010~13년 3,117원 /kg으로 약 8% 하락

표 3. 국산 참다래 생산 및 도매 가격(중품) 추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성목면적(ha)	992	959	1,009	1,122	1,169	1,162	1,331
생산량(톤)	17,642	17,412	19,976	22,555	22,624	20,232	19,442
생산액(백만원)	34,197	27,287	37,187	46,187	46,855	39,877	33,074
가격(원/kg)	3,508	2,563	2,995	3,354	3,506	3,086	2,680

자료: 농식품부(원예경영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산물유통정보)

66 10년간의 관세 감축으로 인해 칠레산 키위 수입비중 확대 99

## 3.3. 칠레산 돼지고기

- 칠레산 돼지고기(관세 10년 철폐) 수입은 2003년 1.5만 톤에서
   2012년 4.5만 톤으로 세 배 증가
  - 그러나 2010년 말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급감했던 국내 돼지 사육 두수가 다시 회복된 2013년에는 수입량이 3.6만 톤으로 감소
  - EU, 미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수출단가가 높은 편이던 칠레산 돼지고기는 FTA 관세감축에 따라 국내 수입시장점유율이 2003년 11.9%에서 2010년 14.4%까지 증가했으나,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수입비중은 오히려 9.1%('13년)로 하락한 상태
- 우리나라 돼지 사육두수는 구제역 발생으로 급감했던 2011년을 제 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2000년 821만 마리에서 2010년 988만 마리까지 증가했다가 2011년 817만 마리로 급감.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2012년과 2013년 사육두수는 992만 마리
  - 2003년 지육 kg당 2,254원이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도 공급이 크 게 부족했던 2011년에 5,808원까지 상승했으나, 2013년에는 3.570원으로 하락
- 최근 국내 공급량 증가와 가격 약세로 돼지고기 수입은 감소 추세
   미국, EU 등 FTA 후발국들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면서 칠레산의 수입점유율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그림 5. 우리나라의 돼지 사육두수 및 가격 동향



66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증가, 그러나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입비중은 감소

99

## 3.4. 과수부문 FTA 기금사업 추진과 성과

-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칠레 FTA 기금 사업으로 과수 부문에
   7년간(2004~10년) 1조 255억 원의 투용자가 집행됨
- 폐원지원사업 2,377억 원, 과수 경쟁력 제고 7,879억 원

#### 표 4. FTA 기금 과수분야 경쟁력제고 사업 실적 (2004~10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299	574	557	367	624	606	588	3,615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0	0	0	0	23	12	0	35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0	0	0	0	25	25	25	75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39	102	103	83	97	87	132	643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99	225	211	303	149	8	68	1,063
과실브랜드육성지원	0	0	0	22	25	23	18	88
과수우량묘목생산	2	13	49	65	42	24	13	208
과원규모화	214	214	333	324	352	317	323	2,077
계	653	1,128	1,253	1,164	1,337	1,094	1,168	7,804
J = 1 1) T H = 0.44+	1 - Dm	) -	-1 11 11	) A E	-1 A1 A1 A	1 +1-1-	1-1-1-	$\frac{1}{1}$

자료: 농식품부, 2011년도 FTA 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점검·평가보고서

- 한·칠레 FTA 기금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와 재배기술 향상, 성목면 적 증가 등 생산성 개선으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수농가의 실질소득은 증가
- 6대 과일 생산면적은 17.7%, 생산량은 6.4% 감소('03년 대비 '12년 기준), 과수농가의 실질소득은 30% 상승

표 5. 6대 과일 생산면적, 생산량, 농가소득 변화

단위: 천ha, 천톤, 천원/10a

	E 11 Ena, E E, E E/10a									
		생산면적			생산량			실질농가소득		
구분	2003	2012	증감률	2003	2012	증감률	2003	2012	증감률	
	(A)	(B)	B/A	(A)	(B)	B/A	(A)	(B)	B/A	
사과	26	31	16.4	365	395	8.0	3,244	3,780	16.5	
ĦĤ	24	14	-40.3	317	173	-45.5	2,549	3,291	29.1	
포도	25	17	-30.7	376	278	-26.2	2,988	4,242	41.9	
감귤	25	21	-13.1	632	692	9.5	1,700	2,032	19.5	
단감	20	13	-31.8	163	174	6.6	1,730	2,097	21.2	
복숭아	16	14	-9.7	189	202	6.6	2,297	3,430	49.3	
합계	135	111	-17.7	2,043	1,913	-6.4	2,419	3,145	30.0	

주: 실질농가소득은 GDP디플레이터를 이용(2010=100) 자료: 통계청(농작물생산조사); 농진청(농산물표준소득자료); 한국은행

○ 한·칠레 FTA 이행 기간 생산기반정비, 과원규모화 등을 통해 과수 농가의 구조조정도 진전(호당 재배면적 18.8% 증가)

66

한·칠레 FTA 기금 사업으로 과수 부문에 7년간 1조 255억 원 투융자 집행

#### 표 6. 과일별 과원 규모화 추이

단위: 백가구, 백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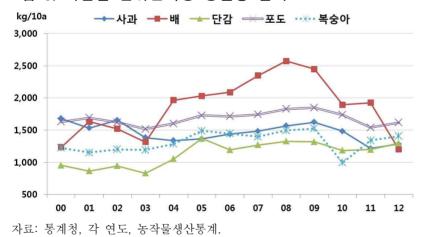
									1114, 70
구분	재배농가변화			재배면적변화			호당재배면적		
품목	2005년	2010년	증감	2005년	2010년	증감	2005년	2010년	증감
사과	377	388	2.8	296	328	10.9	0.78	0.85	7.9
明	365	226	-38.2	214	161	-24.9	0.59	0.71	21.5
복숭아	335	263	-21.2	147	134	-8.9	0.44	0.51	15.5
포도	377	358	-5.2	160	166	4.1	0.42	0.46	9.8
감귤	215	270	25.8	185	212	14.6	0.86	0.78	-8.9
단감	454	284	-37.3	142	114	-20.2	0.31	0.40	27.4
기타	902	1,555	72.4	218	674	209.2	0.24	0.43	79.6
합계	3,025	3,345	10.6	1,361	1,788	31.4	0.45	0.53	18.8

주: 6대 과일을 제외한 기타(살구, 매실, 자두, 떫은감 등)과실의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

자료: 통계청, 2005, 2010 농업총조사

- FTA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비가림 하우스 설치. 키 낮은 과원 조성. 관수관비 시설 확충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주요 과일의 단수는 점진적으로 증가
  - 단, 2010년 이후 잦은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단수 감소 발생

그림 6. 과일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 투융자 지원의 효과로 10a당 과수농가의 평균 노동투입시간은 FTA 발효 전 175시간에서 2012년 155시간으로 11.4% 감소
- 동기간 자가·고용 노동투입시간은 각각 12.8%, 7.3% 감소
- ㅇ 이러한 생산분야뿐만 아니라, 유통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설, 과실 브랜드 육성도 추진됨

46

FTA 발효 후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에도 생산성과 실질소득은 개선 "

○ 한·칠레 FTA 기금사업은 성장잠재력 있는 과수농가 육성, 출하체계 개선, 품종갱신 등을 통해 국내 과수산업의 구조변화와 경쟁력 제고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표 7. 과일별 10a당 노동투입시간 변화

							단위:	시간/10a	
구분	2003 (A)		2010		2012 (B)		증감률 B/A		
	전체	자가	전체	자가	전체	자가	전체	자가	
사과	162	107	146	98	135	87	-16.7	-18.7	
刊	200	141	175	122	165	114	-17.5	-19.1	
포도	239	205	218	175	197	157	-17.6	-23.4	
감귤	115	79	116	79	113	81	-1.7	2.5	
<u></u>	135	106	117	85	119	86	-11.9	-18.9	
복숭아	197	157	169	134	200	168	1.5	7.0	
평균	175	133	157	116	155	116	-11.4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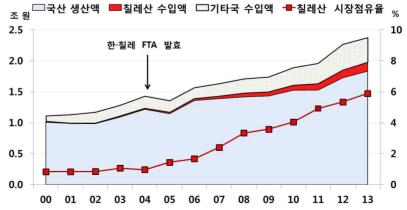
자료: 농진청, 농산물표준소득자료

66 칠레산 포도의 3~5월 과일시장점유율은 6%로 확대 "

# 3.5. 과수부문 한·칠레 FTA 파급영향 평가와 문제

- □ 칠레산 포도의 3~5월 국내 과일시장점유율은 1%('03) 에서 6%('13)로 확대
- 이 기간 국산 과일의 점유율은 85%('03)에서 77%('13)로 하락
- 칠레산 포도와 3~5월 출하 과일·과채 간에는 일정한 소비대체가 존 재한다는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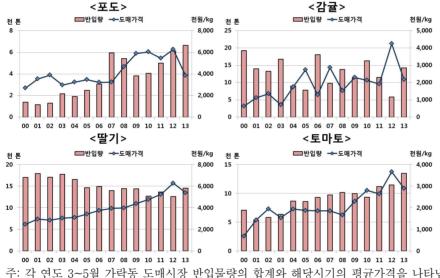
그림 7. 3~5월 국내 과일수요와 칠레산의 시장점유율 추이



주: 과일 총수요는 수입액과 생산액의 합계 자료: GTIS-GTA

- 최세균(2009)은 칠레산 포도와 국산 시설포도, 감귤, 딸기 간의 대 체관계를 추정하여 사후적 파급영향을 계측10)
  - FTA 이행 5년차 생산액 감소분은 신선포도가 52억 원, 딸기가 46 억 원, 감귤이 29억 원, 키위가 3억 원, 복숭아가 40억 원 등 170 억 워으로 계측
- 칠레산 포도와 출하시점이 겹치는 국산 시설포도 및 여타 과일·과 채 간의 대체관계로 인해, 칠레산 포도의 관세인하는 이들 품목의 가격인상을 억제하거나 수요를 일정하게 감소시킴(그림 8 참조)
- 동시에 소비자들이 국산포도와 수입포도를 다른 재화로 인식하여 FTA 이행은 수입포도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의 계기로 작용

### 그림 8. 칠레산 포도수입 시기 과일·과채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각 연도 3~5월 가락동 도매시장 반입물량의 합계와 해당시기의 평균가격을 나타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

## □ 사전 피해 예측치 vs 사후 피해 추정치

○ 사전연구로써 한·칠레 FTA 발효 후 10년간 농업분야 피해액을 문 춘걸·홍정호(2003)는 5,860억 원, 최세균 등(2002)은 3,035억 원 으로 추정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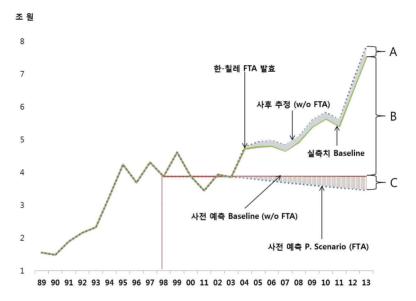
66 칠레산 포도는 3~5월에 출하되는 국산 과일 · 과채와 소비대체 관계 99

<sup>10)</sup> FTA 발효 이후 축적된 통계를 가지고 칠레산 신선포도와 국산 과일·과채 간의 소비대체 관계를 직접 추정할 수 있음. 즉, 수입과일의 관세가 감축되고 그만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대체관계에 있는 국산 과일의 수요를 감소시킴(국산 과일의 수 요곡선 좌하향 이동).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없다면, 줄어든 수요는 시장가격을 하락시키고 국산과일의 거래량을 줄이게 됨 11) 두 연구는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현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입피해 대상품목, 검역을 포함한 제반여건에 대한 가정.

- 정부와 국회는 문춘걸·홍정호(2003)의 계측결과를 토대로 예상 피해액의 두 배인 1조 2천억 원의 FTA 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7년간 과수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지원하기로 결정
- 상기의 사전 피해계측은 FTA 발효 전의 농업생산액 추정치 (Baseline)와 발효 후의 농업생산액 추정치(Policy Scenario)를 각 계측하여 그 차이를 FTA에 따른 국내농업의 피해로 간주
- 사후 피해추정은 실제로 FTA 이행된 이후 실현된 농업생산액 (Baseline)을 기준으로, 10년 전에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의 농업생산액(Policy Scenario)을 추정하여 그 차이를 FTA에 따른 농업피해로 인식

66 칠레산 포도의 3~5월 과일시장점유율은 6%로 확대

그림 9. 한·칠레 FTA 사전예측과 사후추정 방식의 이해



○ 결국, 두 방식의 Baseline과 Policy Scenario 차이는 'FTA 양허안에 따른 연도별 관세인하'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전분석과 사후분석의 피해 개념은 동일

분석방법 등을 상이하게 채택하였기 때문에 예측된 피해규모에서 작지 않은 차이가 발생함. 그러나 과일농가의 평균 소득률 (조수입 대비 소득 비중)이 58% 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최세균 등(2002)의 연구결과(농업소득 감소)를 조수입으로 환산하면, 10년간 누적된 피해규모는 5,233억 원으로 문춘걸·홍정호(2003)의 피해 예측치인 5,860억 원과 유사함. 자세한 내용은 문 한필 등(2012) 12~17p 참조

- 다만, 분석 시 적용한 가정에 따라 사전예측과 사후추정의 피해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사전연구에서 국산 포도와 칠레산 포도를 완전대체재(동일재)로 간주한 것과 칠레산 포도와 키위를 제외한 다른 과일들의 수입금 지조치가 즉시 해제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은 피해 규모를 과다하 게 추정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sup>12</sup>)
  - 반면, 칠레산 포도의 수입시기에 국내에 출하되는 다른 과일과의 소비대체 영향은 사전연구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과소평가요인)
- FTA 발효 후 실현된 국산 과일 생산액 추이(실측치)와 FTA 발효 전 예측한 FTA 발효 후 국산 과일 생산액 전망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 FTA 발효 후 발생한 국내 과일시장의 수급여건 변화(B)가 컸기 때 문임(그림 9 참조)
  - 이러한 수급여건을 고려치 않은 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국내 과일 생산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수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오류임
- □ 한·칠레 FTA 발효 후 가장 큰 수급여건 변화는 국내 소비자의 과일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임

#### 그림 10. 국내 과일시장 규모와 도시가구 당 과일소비지출 추이



○ 한·칠레 FTA 발효 전후를 비교할 때, 연간 1인당 과일 소비량과 소비액은 각각 9.4%. 58.3% 증가

66

칠레산 포도는 3~5월에 출하되는 국산 과일·과채와 소비대체 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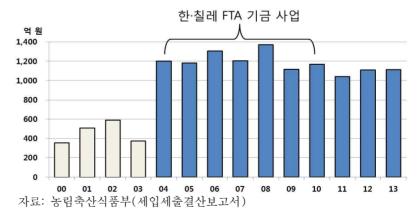
<sup>12)</sup> 전자는 시설포도 피해액을 후자는 복숭아 피해액을 각각 확대시켰다.

- 58.1kg, 92천 원('00~'03 평균) → 63.5kg, 146천 원('04~'12 평균)
- 도시가계 월평균 과일류 소비지출도 27천 원('03)에서 46천 원('13) 으로 70% 증가
- 200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과일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건강·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선호 확산, 곡물 및 육류 소비 감소 등 국내 소비자의 식습관 변화가수입과일을 포함한 전체 과일·과채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13)

# □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여건변화는 과수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융자 지원이 크게 확대된 것임

- 한·칠레 FTA 발효 전후로 과수부문의 평균 재정투융자 실적을 비교하면 발효 전(2000~03년) 연평균 459억 원에서 발효 후(2004~13년) 연간 1,221억 원으로 2.7배 증가<sup>14)</sup>
- 한·칠레 FTA 투융자 지원은 과일 생산량 증대, 과수농가의 생산비용 절감, 최종산출물의 부가가치 증대, 유통비용 감소 등 국산 과일 수 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침15)

### 그림 11. 한·칠레 FTA 전후 과수분야 재정지원 추이



**??** 

66

한·칠레 FTA

기금사업은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13) 안병일·임정빈(2011)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국내 시설포도의 생산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FTA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칠레산 과일의 관세인하 효과는 국제가격, 환율, 생산비의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폭의 수요증가 효과에 의해 상쇄되었을 뿐 실제 수입피해는 발생한 것으로 평가함
- 14) 과수분야 한·칠레 FTA 기금사업은 2008년부터 한·미 FTA 투융자계획에 흡수되어 2017년까지 계속 추진될 예정임
- 15) 문한필 등(2013)은 과수시설현대화 투융자지원이 10% 증가하면 과일 생산이 0.5% 증가하고, 가공시설 및 품질개선 관련 누적 지원액이 10% 증가하면, 과일 생산이 1.2% 증가하며, 시설현대화 관련 지원액이 10% 증가하면 과일 생산비용은 0.4%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 또한 과일 품질향상과 연관된 FTA 투융자 지원액(누적지원액)이 10% 증가하면 농가판매가격은 0.7%(1.1%)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4. 한·칠레 FTA 이행평가와 시사점

# □ FTA 발효 후 관세가 감축된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증 가는 국산 과일·과채의 시장점유율 하락을 초래

- 한·칠레 FTA 발효 후 관세가 감축된 포도, 키위, 돼지고기의 수입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그 결과 수입 농축산물시장에서 칠레산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함
  - 또한, FTA 체결 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칠레와의 농축산물 무역 수지는 더욱 악화됨
- 하지만 전체 수입농축산물 중 칠레산의 비중은 아직 2% 내외여서 국내 농업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음
- 다만 칠레산 포도는 봄철(3~5월) 국내 과일소비의 6%를 점유할 정도로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이 시기 출하되는 과일·과채와 의 소비대체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FTA 이행 기간 국내 과수산업은 발효 이전 수준의 생산규모를 유지하면서 시장가격의 상승을 경험
  - 생산량과 가격 측면에서 과수농가의 수입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은 이유는.
    - 첫째, FTA 관세감축이 칠레산 포도(계절관세)와 키위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었으며, 식물검역에 따른 수입제한조치(복숭아, 살구, 과채류)가 발효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 둘째, 한·칠레 FTA 이행 기간 칠레산 포도의 수입단기는 오히려 상 승함으로써 관세감축 효과를 상쇄했으며,
    - 셋째, FTA 발효 이후 칠레산 포도 수입은 10배 증가했지만 국내 소비자의 과일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대체 영향을 흡수하였고,

수입확대와 칠레산 점유율의 증가에도 수입피해는 가시화되지 않음

"

- 넷째, 과수분야에 지원된 한 칠레 FTA 투융자가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 과일 품질개선 및 품종 다양화 등을 통해 영농수익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했기 때문
-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과수농가는 직간접적인 수입피해를 입었 다고 볼 수 있음
-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즉. 칠레산 과일의 관세인하가 없었다 면, 국산 과일은 빠르게 증가한 수요에 대응해 생산량과 가격이 모 두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FTA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 것 은 과수농가의 손실로 간주해야 함
- 더욱이 FTA 이행 기간 동안 과수농가의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국제 유가, 농자재가격, 환율 등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과일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과수농가의 실질소득은 정체됨16)
- 향후 국내 과일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다수의 FTA 이행과 함께 포도, 오렌지, 체리, 키위, 망고 등의 신선과일 수입증가는 국내 과 수농가의 직가접적인 피해를 가시화시킬 수 있음
- □ 칠레산 포도의 경우처럼, FTA 관세인하에도 소비자가격은 지 난 10년간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자도 FTA 효과를 체감 하기는 어려웠음
- 소비자 또한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관세인하가 없었다면 더 높은 가 격으로 칠레산 포도를 구입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만 FTA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음
- FTA 발효로 수입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시장구조적 요인, 계절적 특 성 등으로 수출국(업체)의 독점적 지위가 견고할수록 관세인하 폭만

66

그러나.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과수농가의 수입피해 발생 99

큼 수입단가가 인상되기 쉬움. 또한 국내 수입·유통업체의 시장지배 력이 강할수록 관세인하는 유통마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16)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득자료집에 따르면 2004년 대비 2010년의 시설포도 생산비는 38.5% 증가하였다(3,986천 원/10a → 5,522천 원/10a). 시설포도농가의 생산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열동력비와 영농시설비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4

년 이후 각각 연평균 7.1%, 3.6% 상승하였다.

- □ 칠레보다 농업여건이 우위에 있는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 이행은 국내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미국, EU와의 FTA에서는 칠레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장접근을 허용한 점, 그리고 이행 기간 수요 증대와 같은 수입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면, 국내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과수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칠레와의 FTA에 대응하여 마련한 과수산업에 대한 투융자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듯이, 중국과의 FTA 에 대비해 밭작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국내보완대책 을 강구해야 함
  - 한편, FTA 이행으로 수입 농축산물의 점유율이 증가할수록 국내시 장은 생산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에 직면 하기 쉬움. 따라서 공급보다는 건강과 안전성 및 기능성 등 농식품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투융자 사업 개발이 필요
    - 또한,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문 영농 인력 확보, 기술보급, 수확후 관리, 조직화,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 아울러, 다수의 FTA가 동시에 이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 수입피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소득안정장치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함

동시다발적수입피해에 대비한소득안정망구축 필요97

17) 그러나 소비자가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수록 생산자의 수입피해는 더 확대될 수 있음

### 참고 문헌

농식품부. 2012. 「2011년도 FTA 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점검·평가보고서」. 안병일, 임정빈. 2011. 12. "FTA가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 사후 평가." (사)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발 표대회 및 정기총회.

문춘걸, 홍정호. 2003. 「한·칠레 FTA 발효시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문한필 등. 2012. 12.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R6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등. 2013. "한·칠레 FTA 기금 사업유형별 경제 효과 분석." 「농촌경제」. 제36권 제3호: 97-117. 최세균 등. 2009. 10.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R5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등. 2002. 10.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정책연구보고 P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 2014년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3. 31

발 행 2014. 3. 31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박성재,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593-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